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1월 24일(주일) 제1271호

CGNTV, ICVM 크라운 어워즈 수상

드라마 <고고송> 금상, 다큐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동상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상 ... 크리스천 콘텐츠 완성도 인정받아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고고송>과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이 지난 16일(토)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ICVM 크라운 어워즈'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이 주최하는 크라운 어워즈는 국제 크리스천 콘텐츠 시상식이다. ICVM은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우수한 크리스천 콘텐츠를 선정 및 시상하면서 크리스천 콘텐츠를 전세계에 알리는 단체다.

올해 ICVM 크라운 어워즈에서는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고고송>이 최고해외영

화(Best International Films) 부문 금상(1위), 여우조연상(Best Supporting Actress) 부문 은상 배우 윤유선,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제작비 5만 불 이상 다큐멘터리(Best Documentary over \$50,000) 부문 동상, 베스트 시리즈(Best Series)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드라마 <고고송>은 배우 윤은혜, 지일주 주연이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드라마 <고고송>은 지난 8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도 초청되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인플루

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투수 커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등 스포츠 스타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스포츠 선교의 선한 영향력을 소개했다.

CGNTV는 지난 2017년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2018년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 이어 3년 연속 ICVM 크라운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크리스천 콘텐츠 완성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수상한 드라마 <고고송>과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9 엔젤트리 사연 개시

사연 3,236건 ... 12월 1일까지 사연접수

오늘(24일)부터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 2019 엔젤트리 사연을 개시한다. '2019 엔젤트리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사연 3,236건이 접수 됐다. 엔젤트리는 연말에 가족, 이웃, 동역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선물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도 감동적인 사연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한 농여촌교회 목회자는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로 성장하면서 양보가 몸에 밴 아이에게 작은 선물이 전달되어서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엔젤트리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기도하고, 엔젤트리 게시판에서 사연을 뽑는다. 후원카드를 작성하고, 절취선을 따라 자른 다음 엔젤함에 넣는다. 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에 천사태그를 붙인다. 이후 안내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 된다. 선물을 발송하고 나서 '선물발송 완료'라고 엔젤폰(010-6442-0191)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2019 엔젤트리 사연은 12월 1일(주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목회지원실에 비치된 엔젤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2469

/ 김영선 기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

12월 9일~2020년 1월 18일까지 전 캠퍼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12월 9일(월)부터 2020년 1월 18일(토)까지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다.

CGNTV는 예배실황을 방영할 예정이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신명기 말씀 6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마지막 주에는 R. T. 켈달 목사(영국 웨스트민스터채플 담임목사 역임)가 특별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온누리 도서관, 기독교문화전시관으로 이전

온누리 도서관이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인해 지난 19일(수) 기독교문화전시관(구 EM전시관)으로 이전했다. 오늘(24일)부터 온누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도 및 어린이들은 기독교문화전시관으로 가면 된다.

온누리 도서관은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6월(예정)까지 기독교문화전시관에서 운영된다.

임직예배 11월 30일, 장로장립예배 12월 7일

장로 38명, 권사 220명, 안수집사 364명

2019년 임직예배 및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임직예배는 11월 30일(토) 오후 4시, 장로장립예배는 12월 7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장로 38명, 권사 220명, 안수집사 364명이 대상이다. 2019 임직자스쿨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임직 대상자는 권사 220명(명예권사 6명, 권사 214명), 안수집사 364명(남 116명, 여 248명)이다.

임직예배에 불참할 경우 임직이 되지 않는다. 남자는 검은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는 검은색 바지 정장, 흰색 블라우스다. 임직예배에 올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올해 장로장립 대상자는 38명(예정)이다. 2019 장로사관학교는 지난 3월 8일 개강해서 10월 25일 종강했다. 피택장로들은 온누리교회 목회철학, 바람직한 장로상, 긍휼의 영성, 부흥축제 봉사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온누리교회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훈련받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계시록 14:14~20(11월 29일 본문)

본문 주제: 반전(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사탄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영상제목: 그분의 선하심 - 카일 아이들먼 목사

내용: 우리 삶에서 힘든 시기가 찾아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헛되지 않으며,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과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질문: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후의 심판을 알리며,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영상QR 코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이 내 삶을 통째로 바꿔버렸다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주인공은 네팔에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아동들을 섬기고 있는 문형남 장로(CMN, 더멋진세상 실행위원)다.

네팔에는 1,600여 명의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아동들이 있다. HIV에 감염된 부모에 의해 태중에서 전염된 것이다. 문형남 장로(CMN)는 NGO 더멋진세상과 현지 선교사, 현지인 스태프와 함께 HIV 감염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문형남 장로는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했지만 HIV 감염아동들과는 인연이 전혀 없었다. 수 년전 어느 날 안산M센터에 의료지원을 갔다가 한 동역자가 문형남 장로를 온누리교회 재난의료센터에 추천했다. 당시 문 장로는 본인이 얼마 재난현장에 갈 일이 있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문 장로는 2016년 3월 긴급구호팀과 함께 네팔 나야상구지역에 투입됐다. 그곳에서 NGO 더멋진세상의 권유로 HIV 감염아동들을 진료했다. 문 장로는 HIV 감염아동들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했다.

“내가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아이들의 삶이 처참했습니다.”

HIV 감염아동 절반 정도는 속옷조차 입지 못했고, 영양상태가 형편없었다. 중이염, 피부질환도 심각했다. HIV 감염아동들을 진료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HIV 감염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었을 것이 분명했다.

문 장로도 예수님처럼 HIV 감염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했다. 그날 이후 문 장로는 현지 선교사와 함께 네팔 HIV 감염아동 60여 명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섬기고 있다.

가장 먼저 네팔에서 HIV 감염아동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런데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지 현지 의료진들이 HIV 감염아동을 진료하는 것을 꺼렸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현지 선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HIV 감염아동을 위한 의료망을 구축했다.

그 다음은 영양지원이었다. 현지 리서치 결과 HIV 감염아동 46%가 저체중이었다.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이다. 문 장로가 HIV 감염아동에게 달걀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물었더니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답하는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HIV 감염아동의 부모는 대부분 사망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HIV 감염아동들에게 1년 동안 영양지원을 해줬더니 저체중 아동이 24%로 감소했다. 2년 후에는 저체중

HIV 감염아동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문형남 장로와 NGO 더멋진세상은 HIV 감염아동들의 교육과 취업도 돕고자 한다. 건강해진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열거나 주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HIV 감염아동들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약간 잘 먹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할 수 있다. 문 장로의 소박한 꿈은 HIV 감염아동들이 10년 뒤 20년 뒤를 그려보고, 희망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 그 꿈을 이뤄내고 있는 이들도 있다. HIV 감염아동이었던 뿌자 자매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비전이 생겼다. 지금은 현지 스태프로 HIV 감염아동들을 돕고 있다.

문형남 장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꿨고, HIV 감염아동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HIV 감염아동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된 삶



〈잔느 귀용〉

잔느 귀용 저 | 두란노 | 11,000원

나는 간혹 책장 정리를 하면서 3개월 이상 읽지 않은 책들은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하지만 노랗게 변색된 〈잔느 귀용〉이라는 책은 늘 내 책상 한 가운데 꽂아 두고 읽는다. 내 삶과 사역의 고난을 이겨내는 성경 다음으로 귀중히 여기는 책이기 때문이다.

귀용 부인은 1648년 4월 18일 프랑스 루

이 14세 때 부유한 귀족가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잔느 마리 보비에 드 라 모트’다. 그녀의 부모는 두 분 다 재혼한 분들이었고 양쪽 모두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들을 두었다. 귀용 부인의 아버지는 매우 독실한 종교인이자 상당한 인격자여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았다. 그리고 딸 잔느를 무척 사랑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는 종교나 자녀교육보다는 사교계나 자선사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잔느는 어려서부터 수녀원에서 자랐다.

신앙이 남달리 깊었던 귀용 부인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우르슬라 수녀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수녀원에서 생활하며 수녀가 되고자 했던 그녀의 바람은 부모의 반대로 꺾이게 된다. 또한 부모의 강권으로 열여섯 살에 스물두 살이나 연상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병약하고 고약한 성품을 지녔다. 그녀의 결혼은 인생의 꿈이 절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다. 결혼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은 늘 병치레를 했고, 시어머니와 하녀까지 귀용 부인을 학대했다. 고통스러운 생활 중에 귀용 부인은 하나님을 더욱 절실히 갈망했다. 마침내 프란시스코 수사를 통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간다. 어느 성인의

중보나 공적인 기도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나간다. 귀용 부인은 결혼생활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히 순복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녀의 옛 자아를 철저히 못 박고, 그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킨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내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12년 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끝에 병치레를 하던 남편이 죽고 귀용 부인이 28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그녀를 불러낸다. “스위스 제네바로 가라”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더욱 심한 박해와 오해, 비난과 수치, 투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귀용 부인을 귀히 사용하신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박해와 비난의 소리가 높았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더욱 많아졌다.

귀용 부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의롭다 함’과 ‘다른 성인들의 중보기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의 교리가 당시 이교도로 몰렸고,

가톨릭 당국과 루이 14세에 의해 이교도로 고 정죄당한 채 수녀원에 감금된다. 국가 중범죄인으로 바스티유 감옥에까지 갇힌 그녀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더욱 깊이 참여하며 주님과 깊은 연합을 체험한다. 혹독한 감옥생활에서 기적 같이 살아서 출감한 귀용 부인은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서신으로 연락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 여인 귀용은 바스티유 감옥에서 출옥한지 15년이 지난 1717년 6월 9일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의 사역을 잘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70세의 나이로 분향에 들어갔다.

〈잔느 귀용〉을 읽으면서 16세기 여성종교 개혁가라고 불릴 만큼 신앙의 삶을 살아낸 여인에게서 얼마나 큰 감명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된 삶이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사도적 순결, 순종, 순교에 이른 그녀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정숙 목사
(병원사역)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20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핍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에는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과거의 그 모든 경험이 그 순간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잠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을 때 물속에 빠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순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물속에 빠지는 것이 믿음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스스로 훈련하고 개발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시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고후 13:5).

시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시험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알고, 깨닫고, 체

험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시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알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시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 고백이 진부한 교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고백이 살아있는 체험, 살아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와 본질을 깨닫고 체험하기까지는 “나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savior)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님(Lord)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또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믿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다중인격장애’가 가능하다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믿음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처럼, 우리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에 넘

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사실 때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고 의뢰하며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으로써 나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믿음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골 1:26-27).

이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고,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잠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깨우침을 주셨던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귀한 죽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6-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솔직히 가능한 일입니까? 내 안에 나와 다른 인격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의 의지와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솔직하고, 체험에 이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체험과 정반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범인이 잡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욕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인격체처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결국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무서운 또 다른 인격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다중인격’ 또는 ‘이중인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격에 다른 인격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해리’는 분열, 분리라는 뜻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이나 상처를 입으면 인격이 분리되어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내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 장애가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인격장애’라고 설명합니다. 죄, 상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분리와 해리가 작용함으로써 다중인격이 되는 것이 발생한다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전혀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 분리가 된다면 정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의 충격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거룩한 충격으로 인해서 인격이 통합되고,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통합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13면에 계속)

결혼비용이 결혼을 가로막으면 되겠습니까?

‘2019 결혼비용 실태보고서’ 평균 결혼비용 2억3,186만 원
성경적 결혼식 제안 … 허례허식 없애고, 선한영향력 높이고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 되는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은행이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살림살이 구입비용도 상당하다.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왜 그렇게 예쁘고 비싼 제품들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결혼비용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예단도 고려해야 하고,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준비해야 한다. 결혼은 일생에 한번뿐이라며 이왕이면 좋고, 비싸고, 화려한 것으로 고르라는 조언도 넘쳐난다. 신랑신부도 허리가 휘는 것은 알지만 일생에 딱 한번 뿐인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눈을 질끔 감고 카드를 긁는다. 물론 안다. 전부 빚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혼비용이 결혼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비부부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다.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결혼비용을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할까? 돈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걸까?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은 결혼할 때 돈을 얼마나 쓸까? 평균 2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성 508명, 여성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이 2억3,186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101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도대체 2억이 넘는 그 큰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 걸까? 항목별로 살펴봤더니 신혼집 마련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혼집 마련에 전체 결혼비용의 73.5%(1억7,053만 원)를 썼다. 2016년 69.9%, 2017년 70.8%, 2018년 72.7%였는데 그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이 결혼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식장 1,345만 원, 웨딩패키지 299만 원, 예물 1,290만 원, 예단 1,465만 원, 이바지음식 107만 원, 혼수용품 1,139만 원, 신혼여행 488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1인당 결혼하는데 평균 1억 1,593만 원이 필요하다. 남녀가 똑같이 부담했

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1억1,593만 원을 만원짜리 지폐로 쌓으면 116m로, 43층 아파트(아파트 한 층 높이 27~28m)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초혼 연령 33.2세(2018년 혼인, 이혼통계)이고, 남성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29.2세(2016년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다. 지난해 대기업 대졸자 평균 초봉 3,748만 원(인크루트 조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3~4년을 모아야 평균 결혼비용을 모을 수 있다. 이마저도 중소기업 종사자는 인감생심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5년 이상 모아야 평균 결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녀의 결혼은 부모들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연세연구소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녀의 결혼, 부모의 노후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평균 1억2,506만 원(평균 자녀 수 2.2명)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후자금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는 큰 금액이다.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93%가 그동안 모아둔 예·적금을 활용했고(복수응답 허용), 퇴직금을 사용한 부모 11%, 개인연금 및 보험계약 5%, 거주주택을 처분한 부모도 5%나 됐다. 빚까지 내서 자녀의 결혼

비용을 도운 경우도 12%나 된다.

잘 알다시피 과거에 비해 결혼을 꼭 하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줄고 있다. 통계청이 13살 이상 우리 국민 3만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 밖에 안 된다. 자살현, 가치관 등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상당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크리스천 결혼식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

크리스천들의 결혼준비는 어떨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허례허식을 줄이면서 결혼비용을 많이 아낀 커플들이 많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결혼식도 있었다.

A자매(브릿지공동체)의 친언니는 허례허식을 줄이면서 결혼비용을 많이 아꼈다.

“언니와 형부가 결혼 전에 서로 협의를 했어요. 허례허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생략하기로요. 예단도, 예물도, 이바지도, 폐백도 안 했어요. 신부들이 다 하는 웨딩패키지도 안 했어요. 결혼식 당일 드레스와 메이크업만 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안 해서 아쉽지 않을까 걱정 했는데 오히려 언니는 만족하더라고요.”

A자매 언니처럼 생각한다고 모두 그렇게 간소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가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니의 경우는 양가 어른들이 신랑신부의 견에 찬성해 줬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문화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개념이 크잖아요? 그래서 신랑신부는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결혼준비 하다보면 결국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성수 집사(김포공동체)는 내년 5월 큰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 양가 상의 하에 예단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이 결혼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양가 부모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허례허식을 뺐으면 좋겠다고요.

차라리 그 비용을 자녀들 신혼집 장만하는데 보태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사돈어른들께서도 제 생각에 흔쾌히 동의해주셨어요.”

조 집사는 과도한 결혼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부모들과 예비부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적정선이 필요합니다. 예비부부, 부모자녀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혼수나 예물 등은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서로 생활수준과 능력에 맞게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B자매(강동 온누리교회)는 주례 사례비를 생략하고, 주례자와 신혼부부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주례해주신 목사님께 사례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래도 사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사례비를 거절하시면서 그 돈을 기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후원하시는 미혼모단체에 목사님과 우리 부부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결혼준비하면서 쓴 비용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시작을 좋은 일로 기념하게 돼서 더욱 뜻 깊었고요.”

결혼, 정말이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도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 그렇다면 돈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걸까? 결코 아니다. 형편에 맞게 결혼을 준비하면 된다. 분수에 맞게, 형편대로, 허례허식은 없애고, 선한 영향력은 높이는 결혼식이 성격적 결혼식이다. 크리스천들이 꼭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다. 수천 만 원짜리 예단, 예물은 분명 허례허식이다. 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가급적 예비부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비하는 게 좋다. 결혼은 모든 것을 갖추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결혼식에서 불필요한 순서나 프로그램을 줄이고, 축하, 사회자, 주례 사례비를 기부하는 것도 좋다. 무료로 결혼식장을 대관해주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영적인 혼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써야 한다.

크리스천 예비부부들이 실천해야 할 결혼준비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축복 나눠주는 멋진 커플 되기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

최근 한 교회에서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의를 하고 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는데 그 예비부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회생신청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비단 이 커플뿐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 예비부부들이 보이지 않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혼식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결혼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결혼, 육체적·정서적·경제적 독립을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비용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착되어 온 문화가 있다. 바로 ‘집은 남자, 혼수는 여자가 준비한다’는 생각이다. 요즘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긴 했지만 남자가 30대 중반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30세 즈음 취직해서 3~5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을 것이다. 한 달에 백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경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드물다. 심하게 양보해서 1년에 1천만 원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3~5천만 원 저축했다면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자거든, 전세든) 부모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재정이 넉넉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가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남자한테 있다.

혼수를 준비하는 여자 입장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집을 해오니 그 집에 걸맞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카드할부를 해야 한다. 실제로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비용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결혼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헤어지는 커플을 종종 보았다.

부모님이 주시는 돈도 결국 빛이다. 요즘 워낙 전세금이 치솟다보니 신혼집 마련할 때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부모자녀관계라 하더라도 무조건 쥐여 주는 돈은 없다. 신혼집은 남자가 하는 게 당연하다든가, 혼수는 여자측에서 최소한 얼마 이상은 해 와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마치 예전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집안일을 돕지 않았던 것을 합리화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 밥도 얻어먹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시대로 변화된 것처럼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형편이 허락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분 지원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마치 맡겨놓았던 돈을 찾아가는 것 같은 당당한 태도는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한 미성숙한 태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몸을 이룬다”(창 2:24)는 말씀은 육체적, 정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할 당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태도겠지만, 만일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빚’이라고 여겨야 한다. 나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부모님이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돈이 없어도 충분히 있다고, 배가 고파도 밥을 먹었

삼각대,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셀카봉 하나만 들고 두 사람이 데이트했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마음껏 웨딩사진을 찍었다. 부케와 부토니에는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웨딩드레스는 해외 직구를 통해 본식용과 촬영용 드레스, 조끼 2개와 속치마를 18만원에 구입했다. 신랑은 택시도 대신 양복 한 벌을 20만 원 주고 구입해서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부가 결혼식에 쓴 비용은 300만 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알뜰살뜰 아꼈으니 그들 부부는 결혼 이후 재정적인 면에서 다른 부부들보다 조금 더 일찍 목표한 바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스몰웨딩으로 아낀 돈은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밑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둘째, 통장 결혼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의 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커플이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통장을 오픈하지

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미 진 빚이 있다면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던지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를 바란다. 결혼 전에 솔직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결혼에 이르게 되면 더 큰 갈등만 초래하게 된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리한 주식투자에 단계까지 시도하는 등의 더 큰 갈등을 빚지 말자.

솔직한 사람이 매력 있다. 그 빚을 공동의 빚으로 삼고 대출상환플랜을 시작으로 가정의 경제플랜을 세우기를 바란다. 대출상환을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비상금플랜도 필수적이다. 경제적 마마보이, 마마걸은 싱글일 때로 족하다.

셋째, 사랑한다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남성들은 자동차, 여성들은 명품백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혼일 때로 족하다. 과거에 얽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가 좋아했던 자동차, 명품백, 해외여행 등을 내려놓고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본인이 좋아하는 소비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의해서 소비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라.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 이지성 작가와 당구선수 차유람 선수는 해외봉사활동에서 만나 많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 커플이다. 이처럼 결혼 전부터 함께 섬길 수 있는 복지단체나 NGO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섬길 것을 권한다. 봉사를 통해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남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결혼비용은 평생 종잣돈의 밑천이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엔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전셋집 마련에서부터 결혼 제반비용을 마음껏 써버린다면 결혼 이후 그만큼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 기간이 길어질 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 예비부부들마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한 커플이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에서 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잔잔한 감동이 물려왔다. 그 돈으로 최고급 벽걸이TV를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신혼여행지를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준비한 것이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기에

남에게 잘 보이려 결혼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예수님 함께 하실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준비하라!”

다고 이야기하는 분임을 깨달았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최소한 자녀에게만 큼은 최고의 선의의 거짓말쟁이(whitelier)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일단 결혼했다면 더 이상 네 부모, 네 부모가 지원해 준 돈에 대해 따지지 말라. 부부싸움 할 때라도 절대 꺼내지 말라. 이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본자세다.

결혼비용 절약하는 실제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혼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결혼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결혼식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스몰웨딩(셀프웨딩)이다. 스몰 웨딩은 배우 원빈, 이나영 부부의 밑발 결혼식처럼 넓은 야외공간을 무료로 빌려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피로연 음식도 1인당 4만원 내외의 비싼 뷔페가 아니라 그 절반 가격인 2만원 내외의 도시락을 제공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스몰웨딩을 올린 한 신혼부부가 소개되었다. 이 부부는 결혼식의 기본인 웨딩패키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와

않고 각자 관리하는데 따른 결과이다. 결혼 이후 부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두 사람의 통장을 결혼시키는 것이다. “내 수입은 내 수입, 네 수입은 네 수입”이라고 하면서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을 보면 도리어 돈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잦다.

외벌이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남편이 생활비만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본인 마음대로 소비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내의 생활비를 받아서 가정부 역할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집 마련, 자녀교육, 노후 준비 등 두 사람의 소중한 미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반드시 서로의 통장을 오픈하는 ‘통장 결혼시키기’를 해야 한다.

셋째, 빚이 있다면 솔직함이 무기이다. 여자는 화장빔 빠면 시체고, 남자는 자존심 빠면 시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을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함부로 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다면 이미진 빚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 역시 무모하긴 마찬가지이다. 아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뢰를 파괴하는 일

떠나는 목회자의 인사 2. 안광국 목사

“최선 다해 하나님 나라 이뤄가겠습니다”

금호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안광국 목사

안광국 목사가 서울 성동구 금호로에 있는 금호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온누리교회를 떠났다. 안광국 목사는 2002년부터 온누리교회를 섬겼다. 대학청년부, 해외비전교회, 국내캠퍼스, 성인공동체 등을 두루 섬겼다.

안광국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꿈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서 큰 사랑에 빛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안광국 목사와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부족한 게 많은데
이해해주고, 참아주시고,
격려해주신 그 큰 사랑에
빛진 자로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뤄가겠습니다.”

특별한 계기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998년 중국 북경에서 온누리파송 박종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1년 동안 단기선교사로 파송받아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당시 박 목사님께서 신대원 후배인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밥도 사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선인장 농장에도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2002년 박종길 목사님께서 양재 캠퍼스와 대청을 섬기게 되셨을 때에 함께 사역을 하자고 불러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 온누리교회에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큰 기쁨에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공동체를 섬기셨습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목회자가 다양한 목회적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다양한 공동체와 사역을 섬겼습니다. 안양안산공동체, 신림금전공동체, 영등포구로공동체, 양천공동체, 서초B공동체 등의 공동체 사역과 대학청년부에서 하늘대학부와 요셉청년부, 또한 대청 본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교회의 부흥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과 국내외 비전교회를 섬기는 Acts 29본부를 섬겼고, 북경 온누리교회를 개척하

도록 선교사로 파송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LA 온누리교회,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담당했습니다. 교회 외의 사역으로는 두란노천만큐티운동본부, 미주 두란노천만큐티운동본부, <빛과 소금> 편집장, CGNTV 목회 PD등 너무나 다양한 목회적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저에게 좋은 목회적인 훈련을 하게 하였고 소중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제가 폭넓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이상준 목사님과 박태영 목사님은 친구처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요셉공동체를 담당할 때 멘토로 섬겨주셨던 심희돈 장로님과 권득한 장로님은 인생의 멘토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당시 청년들을 섬기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양재공동체 양성희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박장근 집사님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사인수 받던 날 박장근 집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저는 그날 저녁 가족 위로예배에서 인생의 첫 번째 죽도를 했습니다.”

금호중앙교회를 소개해주십시오.

“금호중앙교회는 63년 된 교회입니다. 역사

가 깊은 교회입니다. 또한 금호중앙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교회입니다. 카페와 농구장을 상시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호중앙교회는 다음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차세대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데 금호중앙교회는 차세대 부서가 1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금호중앙교회 차세대들은 주일이든 주중이든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금호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날마다 십 수 명이 릴레이로 철야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담임목사 청빙과정도 남달랐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은 여러 명의 목회자가 지원해서 각자 설교하고, 인터뷰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그런데 금호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는 청빙위원회와 교회 리더십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저를 청빙해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로운 청빙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포부와 비전을 말씀해주십시오.

“금호중앙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저에게 개척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꿈꾸는 대로 마음껏 목회의 날개를 펼쳐라고 하면서 전적인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손발이 잘 맞는 목회자들도 금호중앙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배려해주셨습니다. 양재 온누리교회 차세대 임경현 목사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던 박신광 전도사가 저와 함께 금호중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겸손한 자세로 금호중앙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것입니다. 담임목사가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보다는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5년은 차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호중앙교회 내년 표어를 “이 말씀을 먹으라”(겔 3:3)로 선포하고 온 교회가 성경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성경 핵심 구절 100개를 뽑아서 차세대부터 성인공동체까지 매주 한 구절씩을 암송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 31장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캠페인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T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호중앙교회가 있는 금호동 지역은 서울에서 드물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교회는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찾아갈 만한 젊은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착시켜 방황하는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온누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저의 30대와 40대를 다 보낸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추억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사역지에서 담임교역자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랑에 빛진 자로서 금호중앙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뤄가겠습니다.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선물

1. 두란노서점

책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풍성한 영적 양식과 소소한 행복 선물하는 '두란노서점'

내가 좋아하는 책, 현재 고민, 읽고 싶은 책 등을 가만히 들고 있던 직원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들고 왔다. 그 책을 받아들고 펴는 순간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에서 내게 꼭 필요한 약을 처방 받은 기분이 들었다. 두란노서점에서 경험한 일이다. 이 지면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특별한 선물 같은 장소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곳에 찾아가기만 해도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소소한 행복도 선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곳곳에 삶에 지친 성도들을 위한 장소가 숨어 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두란노서점'이다.

/ 홍하영 hha0@onnuri.org

요즘 서점에 가면 참 좋다. 사각사각 책이 넘여가는 소리와 잔잔히 깔리는 음악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픈 책을 고르는 시간도 정말 즐겁다.

'책 처방'이라는 말이 있다. 각자의 고민과 상황에 맞는 책을 소개해준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고민의 답을 책에서 찾고 있다. 유명 저자의 인생이 담긴 책을 읽으며 그 인생을 쫓기도 하고, 잠깐의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집을 집어 든다. 짧은 시를 읽으며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집어든 동화책에서 뜻밖의 용기와 위로로 얻기도 한다. 책에는 분명 무시하지 못할 좋은 힘이 있다.

그 좋은 힘을 가진 책들이 가득한 서점은 들어서서만으로도 포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서점 특유의 공기, 가지런히 정돈된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정감, 진심을 다해 책을 소개해주는 직원의 친절함,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발견했을 때 오는 희열감 등이 일상에 지친 나를 위로하는 선물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성도들을 위한 맞춤 책 처방이 있고, 소소한 행복을 선물해주는 공간이 있다. 바로 '두란노서점'이다.

책으로 예수님 사랑 전하는 사람들

두란노서점은 '책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책과 사람, 예수님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란노서점에 가봤다. 흘러나오는 잔잔한 찬양소리가 지친 발걸음을 서점으로 어서 옮기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뽀뽀한 영의 양식들이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다. 설교, 상담, 가정, 어린이 등 주제별로 정리된 책장은 지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잠들어 있던 책 읽고 싶은 마음을 깨우기도 했다. 무엇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두란노서점 직원들의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

그날따라 구석에 자리를 잡고 바쁘게 움직이는 두란노서점 직원들이 보고 싶었다. 천천히 두란노서점 풍경을 내 눈과 마음에 담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좋은 책을 소개해달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직원이 그 성도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을 소



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두란노서점 직원들.

개했나 보다. 순식간에 그 성도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다. 이번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포장을 부탁하는 성도가 보였다. 그런데 선물포장을 부탁한 성도와 그 선물을 포장하는 두란노서점 직원의 표정이 똑같았다. 기대가 가득해 보였다. 두란노서점 구석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인데도 책을 한 권 한 권 정성껏 정리하는 직원도 보였다. 덕분에 우리가 책을 기분 좋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두란노서점은 일반 서점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았다. 그 차이가 궁금해서 홍주영 부장(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게 물었다.

“일반 서점과 두란노서점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두란노서점 직원들은 책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명이자 목적인 사람들이예요. 성도님들께 단순히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두란노서점만의 특징입니다.”

홍 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두란노서점을 둘러봤더니 직원들의 행동이 달라보였다. 기쁨과 책임감이 잔뜩 묻어있는 게 눈에 보였다. 두란노서점 직원 백성근 형제(서빙고점)는 성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2년 전 두란노서점에 입사했는데 성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2년 동안 책을 무려 143권이나 읽었다.

“성도님들께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것이 제 사

명입니다. 책을 사러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성도님들께 꼭 필요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두란노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성도님들이 읽고 좋으면 또 다른 분들께 선물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갈망을 가장 잘 알고,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곳

두란노서점은 주일이 가장 바빠다. 수많은 성도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강신호 형제(두란노서점 서빙고점)는 매주 주일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온다고 한다.

“매주 주일 두란노서점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세요. 목사님이 추천해주신 책이나 온누리신문에 소개된 책을 찾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 내가 참 멋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란노서점 직원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돕고, 영적 갈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쉽지가 않다. 두란노서점 만큼 성도들의 영적 갈망을 가장 잘 아는 곳도 없고, 효과적으로 영적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곳도 없다.

강신호 형제는 두란노서점의 가장 큰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두란노서점의 가장 큰 장점은 성도님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와 비전을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님이 추천하시는 책이나 부흥축제와 같은 교회 행사 강사님들의 책을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곳도 두란노서점입니다.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책을 바로 준비하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두란노서점의 큰 영광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삶에 지쳐 위로와 용기, 도전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책 처방을 부탁했다. 백성근 형제는 <교회오빠>(오은주, 이호경 지)를 추천했다.

“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고 이관희 집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 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때 삶을 살아갈 용기와 도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신호 형제는 <예수 소망>(유기성 지)을 추천했다.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삶에 소소한 위로와 용기, 도전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두란노서점에서 가서 책 처방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떨까? 두란노서점의 직원들과 수많은 책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두란노서점 지점 안내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5길 38 두란노빌딩
(서빙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양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오로로31길 70 양재 온누리교회 1층
(동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 2층(테크노마트 건너편)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54번길 6 지구촌교회 분당성전 지하 1층
(수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로 48번길 48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1층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0 순복음노원교회 1층
(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57 동안교회 유스센터 1층
(부산 수영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47 수영로교회 교육관 1층
(부산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 18 대우동삼상가 지하 1층

세상의 파도 이겨낼 믿음 발견!

청년연합집회 ‘홀리임팩트 대전’, 300여 명 참석

그 집회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회였다. 지난 20일(수)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청년연합집회 ‘홀리임팩트 대전(이하 홀리임팩트)’ 말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갈망을 토해내며 집회장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땀과 눈물을 쏟아낸 청년 3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집회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의 간절함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마치 다윗 같았다. 집회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청년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전 온누리교회와 대학청년부 그리고 대전지역 청년들이 연합한 바로 그 현장에 다녀왔다.

/ 홍하영 hha0@onnuri.org

설렘 가득한 표정,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아멘 소리, 식지 않는 기도와 찬양 열기...

지난 20일(수)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홀리임팩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다. 홀리임팩트에 온 청년들은 표정부터가 남달랐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둔 어린 아이 같은 설렘과 기대감이 엿보였다. 김석영 형제(드리머스 청년부)는 몇 주 전부터 홀리임팩트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올해도 홀리임팩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요.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요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믿음에 대한 회의감 등이 있었는데 홀리임팩트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민거리들을 벗어버리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저녁 7시 30분. 청년들이 입장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곧바로 집회장으로 달려온 청년들이라 피곤할 법도 할 텐데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얼굴에는 하나같이 웃음꽃이 만개해 있었다. 과연 무엇이 청년들을 그토록 기대하고, 설레게 만들었을까?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 담임)는 그 비결은 ‘말씀과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했다.

“홀리임팩트에 대한 대전지역 청년들의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말씀과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올해도 홀리임팩트를 개최해달라고 저를 달달 बु다라고요(웃음). 올해 홀리임팩트에 참석하려고 직장에 반차를 쓰고 온 청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 뜨거웠던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열기

홀리임팩트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말씀과 찬



다윗과 같이 기뻐뛰며 찬양하는 청년들(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청년들(아래).

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지난해 처음 개최한 집회다. 대전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연합하는 집회이자 모임이다.

홀리임팩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청년들 덕분이다. 지난해 홀리임팩트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모임을 만들고, 찬양을 뜨겁게 사모하더니 찬양팀이 부흥했다. 청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홀리임팩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다. 청년들의 예배와 집회에 대한

갈망이 올해도 홀리임팩트를 막 오르게 한 원동력이다.

올해 홀리임팩트에는 청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의 문은 홀리임팩트 찬양팀이 열었다. 이날 홀리임팩트 찬양팀은 뜨겁고, 신나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메시지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가 ‘파도를 넘어서는 삶’을 주제로 전했다. 김 목사는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은 문제해결도, 대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은 인생의 파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홀리임팩트에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열기가 돋보였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마치 다윗 같았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강대상으로 뛰어 오르기도 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본당을 가득 채웠다.

허진성 형제(드리머스 청년부)는 “제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세상의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보였는데 이번 홀리임팩트에 참석하면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김석영 형제는 “이번 홀리임팩트를 계기로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한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인데도 세상의 가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홀리임팩트에서 진리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고 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내년 홀리임팩트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선물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충남 대학교 정상화홀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역칼럼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오는 직장이 없다. 많은 청년들이 큰 상실과 체념,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교육의 도시라 불리는 대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만 줄줄이 들려온다. 많은 청년들이 높은 파도와 같은 인생의 난관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에 참 소망을 가득 채워주는 예배가 바로 ‘홀리임팩트 대전’이다. 예수만이 소망이 되고, 예수만이 살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전하고 있다. 그 분명한 메시지에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예수만이 소망, 예수만이 살길

지난해 대전 온누리교회에 부임한 이후 청년들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홀리임팩트 집회를 열어달라고 졸랐다. 공허한 마음을 말씀과 찬양으로 채우고 싶어 했다. 홀리임팩트라는 말 그대로 청년들의 마음에 ‘거룩한 충격’이 전해진 듯 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모임을 만들고,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함께 찬양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찬양팀이 부흥했다. 지난해 홀리임팩트 대전에 참여했던 대전지역 교회에서도 문의가 이어졌다.

홀리임팩트 대전을 통해 청년들이 변화되기

를 소망한다. 시대적 아픔과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믿음의 세계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낙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믿음의 세계를 잊지 않고 예수라는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홀리임팩트 대전을 계기로 대전지역 청년들로부터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기를 축복한다.

특집기고 NGO 더멋진세상 창립 9주년을 기념하며

총체적 선교와 하나님의 지상명령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꽃 피우고 있는 총체적 선교



김홍국 르완다 지부장
(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는 ‘천 개의 작은 언덕의 나라 르완다’에서 2012년 응호망과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40여 개 마을, 주민 4만여 명을 총체적 선교 관점에서 섬기고 있다. 르완다 대

부분의 마을에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기본적인 의료, 보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이 80% 이상이다. 저소득 소농가구들이 대부분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km²당 416명)를 가진 르완다는 주민 대부분이 평균 0.3ha 이하의 적은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및 토양 황폐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5세 미만 아동 48% 이상이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1994년 4월에는 제노사이드(인종, 이념 대립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대량학살)가 발생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생길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는 나라이다.

2015년 4월 내가 르완다 응호망과마을을 주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상 행복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세평 남짓 흙집에서 여러 식구가 하루 한 두 끼만 먹고 살고, 어린 아이들이 물 5리터를 얻기 위해 제 몸집만한 물통을 들고 매일 2킬로미터 이상을 걷고 있었다. 제노사이드로 아바를 잃은 어느 소녀가 작은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되어 집안일을 하며 힘겹게 살고 있었지만 도시인인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미소로 다가왔다.

르완다 응호망과마을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없었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 스태프들이 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오면 온 동네 아이들이 따라온다. 그때마다 생각했다. 이 방인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저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전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죄를 짓는 심정으로 마을을 다니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4:18~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삶을 다시 한 번 묵상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한 개인이 총체적(영, 혼, 육)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공동체까지 회복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르완다 아이들이 더멋진세상이 설립한 영유아발달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총체적 선교와의 운명적 만남

나는 1993년 한국을 떠나 서남아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고아원, 병원, 학교 등을 설립해서 다양한 선교지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단추가 잘못 끼워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 수가 늘어갔지만 15년 동안이나 주민 대부분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는 교회도, 학교도, 병원도 운영되지 않았다. 기존의 선교방식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화해를 추구하고, 사회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를 알게 되었다. 아내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서 국제개발 석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 아내가 학업을 마치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부탄이라는 땅 끝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중에 NGO 더멋진세상을 만났다. 2012년 아프리카 르완다에 NGO 더멋진세상 지부가 설립되었는데 그곳을 섬겨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다. 우리 부부를 파송한 기독교대한성결교단 해외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2015년 4월부터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건강한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주체,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확보가 목표

아프리카 르완다 주민 대부분이 빈곤가구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농업개발사업, 보건영양사업, 교육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했다. 현지 농업전문가와 함께 자연농업을 활용한 농업기술 및 양계기술을 교육하고,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

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사업은 자연농업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가소비밖에 하지 못하던 주민들이 농업훈련을 받고 이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수확과 판매를 통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NGO 더멋진세상이 보건지소 2개와 보건소 1개를 건립했다. 그 덕분에 4만 여 명의 주민들이 드디어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속적인 보건 전문 인력 역량강화도 실시하고 있다. 마을단위마다 식수위생위원회와 어머니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구들을 방문해서 영양상담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교육시설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던 학부모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6세미만 아동들을 위한 영유아발달센터(ECD)가 문을 열었다. 지금은 학부도 교육실을 포함해서 3개 학급 90여 명의 아동들이 영유아발달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다. ECD 교육 사업은 영유아들이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받고, 더불어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 영적발달을 포함한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교육 사업초기부터 주민 자치기구를 조직해서 주민들이 학교운영에 동참하고 있고, 지방정부와도 MOU를 체결해서 지역사회로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거환경 개선, 식수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역사회보건선교(Community Health Evangelism, CHE)라는 총체적 개발 전략을 통해서도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돕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사회보건선교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과 리더십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자원들을 발

견하며,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력사업도 활발하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등 다양한 NGO들과 MOU를 체결해서 협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KOICA 민관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아동영양개선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및 사랑의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모자보건 영양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총체적 선교를 위한 평신도 전문인들의 헌신 요청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는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므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이다. 따라서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총체적 선교의 비전을 가진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한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 스태프들은 매일 아침 경건회를 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총체적 선교비전을 함께 이뤄가고 있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ADEPR교단의 응호망과교회, 르완다장로교단(EPR)이 협력해서 개척한 무하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무하지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2년 동안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예배당을 봉헌했다. 유소년부, 청년부, 장년부를 중심으로는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8월에는 EPR장로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두란노아버지학교를 했고, 11월말에는 목회자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총체적 선교비전을 공유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마을의 리더십이 되고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면 사역의 효과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암 5:24).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 아닐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공회와 정의를 통해 사회를 섬기며, 자연을 생태학적 배려로 경건하게 사용해서 피조세계를 돌보는 총체적 선교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에서 총체적 선교비전을 함께 세워갈 평신도 전문인들의 헌신을 요청한다. 의료, 교육, 농업, 건축 등 개발과 관련된 영역에서 전문인들의 섬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해 The 멋진 당신 전도집회.

CCF 맞춤형전도문화집회 ‘The 멋진 당신’

12월 1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5층

CEO를 위한 맞춤형전도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이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5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다.

CCF(Christian CEO Forum) 주최

로 열리는 이번 The 멋진 당신 전도 집회에서는 박지윤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게스트로 가수 백지영이 출연할 예정이다. 간증은 이노레드(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박현우 대

표가 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CCF에서는 매년 CEO를 위한 맞춤형전도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을 개최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굴 및 전도하고 있다.

문의: 02-570-743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자동차 기증해 주세요”

일본어예배에서 차세대사역에 사용할 자동차를 기증받고 있다. 매주 토요일 유아부(푸치 파푸스), 초등부(파푸스) 예배에 참석하는 일본인 어린이들을 위한 셔틀차량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문의: 010-4764-8382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2월 세미나

스피치의 본질과 기술을 탐색하는 세미나 ‘예수처럼 말하는 법; 성경적 스피치 10계명’이 12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 신 용산교회(경의중앙선 이촌역 5번 출구 도보 10분)에서 열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말의 본질과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글쓰는 방법도 알려준다. 크로스미디어랩 이승현 대표(전 YTN기자, 앵커)가 강의한다. 회비는 5만 원. 12월 2일(월)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456

남양주, 자녀양육콘서트 ‘King’s Family’

성경적 양육 대안 및 행복한 가정예배 세우기

남양주 온누리교회 예꿈영역에서 부모들을 위한 자녀양육콘서트 ‘King’s Family’를 개최했다.

자녀양육콘서트 ‘King’s Family’는 지난 16일(토) 오후 2시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과 2층 예꿈/꿈땅홀에서 ‘성경적 양육 대안 및 행복한 가정 예배 세우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70여 명이 참석했다.

찬양사역자 김지혜(뷰티풀워십),

백은실 사모(말씀 심는 가정)저자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황귀희 전도사(남양주 영아부)는 “자녀양육콘서트 King’s Family에 참석한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며, 답을 찾아가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창조신앙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12월 8일~1월 12일 양재 강의동 302호

창조신앙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트리니티 강의동 302호에서 진행된다.

창조신앙아카데미에서는 설교와

우연-지적설계, 정보이론, 공통의 신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12월 1일까지 등록하면 3만 원).

문의: 010-8906-4940

“지상명령 완수 위한 전 세계적 협업”

국제로잔운동 총재 마이클 오 목사 초청 CCF 특강

지난 16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CCF 특강이 열렸다. 국제로잔운동 총재 마이클 오 목사가 ‘로잔4 비전-함께 함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강하다,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한 축매가 되는 협력’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특강에는 CCF, OCC공동체, 2000선교본부 총체적

선교팀, 안산M센터 성도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마이클 오 목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현주 기자

조산소 리모델링 및 모자보건소 신축공사

NGO 더멋진세상, 지난 12일 준공식 가져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2일(화) 아프리카 세네갈 피에스시 빈민촌 조산소 리모델링 및 모자보건소 신축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 최원석 대사(주 세네갈, 세네갈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피에스시 빈민촌 조산소에는 분만장비, 회복실, 대기실, 조산사 숙소 등이 추가됐고, 신축된 모자보건소에서는 산모들이 산전산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누리 계수위원회 감사의 밤 행사

지난 16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아주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온누리교회 현금계수위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온누리 계수위원회 감사의 밤’ 행사가 바로 그것.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계수위원 145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재석 목사(예배본부장) 말씀, 장로중창단 특송, 사역소 개, CCM애드 특별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봉래 장로(계수위원회 담당)는 “늘 수고하는 현금계수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김성진 팀장은 “골방 한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실행위원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적치유학교 60기 참가자 모집

12월 6~8일 파주솔수양관

내적치유학교 6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0기 내적치유학교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파주솔수양관에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치유와 회복, 역기능 가정의 회복,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관계회로와 감사나누기, 애착의 고통과 회복, 성숙함과

동기화(Synchronize),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의 회복 등을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20세 이상 6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성도가 대상이다. 회비는 15만 원(교재, 식사, 숙박 및 이동 차량비 포함). 문의: 010-2596-1014

11월 세례자

■서빙고

김은영 720513
김정현 811201
나대균 841019
주진경 790212

유아

김노아 181119
김상균 손민정
김미소 181010
김현준 김미선

김아인 181228
김지훈 오주희
김지안 180802
김성훈 해민영

김하민 190430
김병현 정하니
박사랑 190803
박하철 백은지

이루니 170822
이승주 변은미
이하을 180223

이 경 장미진

전하윤 171201
전병길 이지선
정하영 171121

정영근 장자경
조수아 180407
조명희 최지원
조이안 180107

조득용 조영선

■양재
고상진 861226
고영미 630715
김도윤 720320

남정숙 610421
박태섭 660905
심동섭 590828
이현아 930909

조모란 831006
하인희 550412

입교

최종미 850925
유아
강이한 190315

강석동 황진희
김태연 180616
김범수 함승현
박채은 171204

박창민 최은지
이도연 180120
이호영 안지원
이시은 190805

이동민 이경하
이유은 180903
이우람 백명은
전이삭 171126

전진규 김은진
정진우 171126
정재훈 정유민
최유진 181102

최홍구 최기쁨

최지우 181023

최병윤 윤지영
홍지민 171216
홍관우 정은지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김성우 870426
김소민 841224
노기현 910729

양희석 871107
우지영 900704

유아

이로이 190703
이상인 배한나

요셉

김진솔 910228
서정훈 870924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195	김유진	여호수아	1138217	강하선	CH630	1138238	김현철	중종로	1138258	오위영	부천 소망
1138196	성지은	OEM	1138218	한승교	CH630	1138239	이호숙	인천 서누리	1138259	이치호	하브
1138199	박은정	강서	1138219	떡 선	CH630	1138240	신경원	Point5	1138260	이석민	하브
1138200	심형섭	강촌	1138220	허양기	CH630	1138241	채 진	강남A	1138261	이미선	서초C
1138201	백정욱	강남A	1138221	소순민	CH630	1138242	고혜경	Bridge33+	1138263	김영근	관악금천
1138202	김성희	대전 동누리	1138222	김연희	송파A	1138243	김정재	영등포구로	1138264	안병래	이촌
1138203	김홍문	대전 남누리	1138223	이원석	강남A	1138244	황훈식	여호수아	1138265	김석주	북누리
1138204	임재열	인천 미추홀	1138224	이서원	인천Web	1138245	전혜상	여호수아	1138266	문예성	여호수아
1138205	박정혜	도곡	1138225	석하은	인천Web	1138246	정지혜	여호수아	1138267	한지훈	강동 말씀
1138206	김유나	용산	1138226	김정연	인천Web	1138247	채영광	W	1138268	임대규	인천 서누리
1138207	지민구	CH630	1138227	서대진	양지 동누리	1138248	이하경	여호수아	1138269	이상현	Bridge33+
1138208	방지애	CH630	1138228	김중연	강서	1138249	김유미	여호수아	1138270	박경민	Pole2
1138209	류영주	CH630	1138229	김소영	양재	1138250	박진실	여호수아	1138271	이예나	송파B
1138210	조현기	CH630	1138230	최유원	서빙고	1138251	오세령	여호수아	1138272	김영수	송파B
1138211	조동호	CH630	1138231	이종길	양지 동누리	1138252	김리원	여호수아	1138273	이지훈	SNS
1138212	류영주	CH630	1138232	한지우	양지 동누리	1138253	전경환	여호수아	1138280	양희석	여호수아
1138213	조 현	CH630	1138233	변병설	OCC	1138254	전경철	부천 소망	1138282	조인희	인천 서누리
1138214	김지나	CH630	1138234	박지영	부천 소망	1138255	박해진	여호수아	1138283	김경미	서초A
1138215	반새리	CH630	1138235	김갑수	인천 서누리	1138256	박정원	여호수아	1138284	구서연	Bridge33+
1138216	김승현	CH630	1138237	서복선	인천 서누리	1138257	김준희	서빙고	1138285	유시우	양지 서누리

창조신앙 아카데미 수료 간증



/ 윤병석 성도(강남C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성경과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시대에서 인간이 우선시 되는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다. 그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상인 계몽주의, 동일과정설, 진화론이 나타나게 된다.

중세 암흑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하나님과 성경보다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 증거 없이 가정으로 이론을 만든 동일과정설, 진화론 등의 영향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보다 가짜이론들을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론들과 성경을 연결하고자 했다. 그것이 유신론적 진화론, 다중격변설 등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러한 타협들은 우리의 믿음에 회의와 좌절이라는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전능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완전하심 등에 흠집을 댈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더 발전할수록 성경의 완전함과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 타협이론들의 허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다.

창조신앙 기초과정에 이어 심화과정인 창조신앙 아카데미를 이수하게 되었다. 현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믿음이나 전도에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까지 주일학교에 잘 나오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난 다음 믿음에 회의를 가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은 사실 아무런 근거에도 기초를 두지 않은 허구이며, 현재까지 진화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 단지 개체변이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지질연대표도 아무런 근거 내지는 증거가 없는 한 사람의 창작물에 불과하다.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도 수많은 가정과 오류가 범벅이 된 것이지만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양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세상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이론들을 가져와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이다. 창조론은 신화일 뿐이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맞서 우리는 창조과학에 대해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진리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세상에 알리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러브소나타 참가 후기



/ 박소망 성도(가명, 하나공동체)

지난날을 회개

나는 일본 선교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인데 차라리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가해국인 일본을 위해 선교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몇 개월 전 하나공동체가 처음으로 러브소나타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태경 장로님께서 나에게 “자매님, 러브소나타 같이 가서야죠”라고 하셨다. 장로님의 짧고 나지막한 한마디가 왠지 가야만 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결국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마모토 러브소나타에 동참하게 되었다.

구마모토 기독교 유적지 아마쿠사시로박물관에 방문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250년 동안 잔인한 방법으로 핍박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일본 기독교의 참담한 박해사를 접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북한에는 인민감시체제의 하나로 사상과 인권을 통제하는 ‘5호 담당제’가 있다. 놀랍게도 5호 담당제가 바로 일본에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사용했던 5인조 제도를 수입한 것이라고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에는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배교를 강요했다고 한다. 아이 셋을 엄마 주위에 두르고 밧줄로 꼬꽂 묶어 불속에 집어넣기도 했단다. 결국 바깥쪽에 있는 아이부터 불에 타 죽어가는 것을 엄마가 지켜보면서 함께 죽어야 했다. 팔팔 끓는 온천물을 몸에 붓고 수없이 반복해서 고통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그 뜨거운 온천물에 던져 처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순교한 기독교인의 수가 무려 30만 명이라고 한다.

오늘날 박해는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땅에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아픈 역사를 품고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온갖 신사와 잡신들 속에 둘러싸여 복음이 정체된 일본을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일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 온누리교회가 일본 여기저기를 누비며 30회에 달하도록 러브소나타를 이어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일본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외면했던 지난날을 회개했다. 우리는 구마모토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왔다. 이제 그곳에 물주고, 햇빛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류모세 목사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역사’



류모세 목사
(살롱이스라엘 담당,
《열린다 성경》시리즈
저자)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고스란히 오스만 터키제국의 차지가 되었다. 후추와 향료의 본 고장 인도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가장 먼저 나선 선두 주자가 포르투갈이었다. 유럽의 변방인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그늘에 가려 2류 국가 신세를 면할 수 없었는데 신항로를 발견하면서 잠시나마 1등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로 불리는 엔리케는 항해 관측소를 세워 신대륙으로 향하는 바

닷길을 열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했다. 이 항해 관측소 소장인 유다 크레스케스는 당시 유명한 유대인이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크레스케스는 마요카 섬의 지도제작자였는데, 유럽에서 지도와 나침반의 대가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1492년 스페인의 유대인 추방이 있은 후에 포르투갈 궁중의 천문학자로 등용된 아브라함 자쿠토 역시 유대인이었다. 1495년 회망봉을 돌아서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탐험에 앞서서 최종적인 자문을 구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쿠토였다.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스페인이 나섰다. 옆 나라 포르투갈의 독주를 시기와 질투 속에 지켜보던 스페인은 1492년이 되면서 국운이 융성해진다. 1492년은 여러모로 스페인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해이다. 이슬람 통치의 오랜 잔재를 뽑아낸 해이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한 해이다. 중세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던 스페인 유대인공동체가 추방된 해이기도 하다. 세 사건은 서로 무관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숨겨져 있다. 412년 게르만족의 분파인 서고트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후 1세기 반의 정치적 혼란기에 종교적 자유를 만끽했다. 하지만 589년 독실한 가톨릭교도인 리카르도가 국가적인 개종을 단행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의 개종’과 ‘해외추방’ 중에서 택해야 했다. 711년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가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다시금 유대인 역사에 반전이 일어난다. 정복자인 이슬람교도와 함께 추방된 유대인들이 합류하면서 스페인은 이후 5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소왕국이 뒤섞여 유럽의 3류 국가에 머물던 스페인 역사의 새 장은 1469년 아라곤 왕(페르디난드)과 카스틸레 여왕(이사벨라)이 결혼하면서 열린다. 그들이 결혼하고 10년 뒤 독실한 기독교 제국인 스페인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사가 입장에서 보면 머지않아 닥쳐올 엄청난 비극의 전조였다. 1492년 1월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왕국인 그라나다를 함락한 스

페인은 그 여세를 몰아 8월 1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고 만다. 유대인들이 추방된 항구에서 출항을 기다리며 정박 중인 세 척의 배가 있었는데 신대륙으로 향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선단이었다. 신대륙 발견에서 빠질 수 없는 이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다. 신대륙으로 향하는 선박 건조가 유대인들의 압류된 재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선단에는 숙련된 지도관독자와 통역관, 의사들이 동행했는데 그들 대부분도 유대인들이었다. 콜럼버스는 인도인이 히브리어나 아랍어를 할 것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유대인 통역관인 루이스를 데리고 간 것이다. 신대륙에서 옥수수를 가져와 기근으로 죽어가던 유럽인들을 살린 것도 유대인 루이스에게 돌려야 할 공적이다.

〈열린다성경 스테디투어〉
-이스라엘 2020년 4월 30일~5월 7일
-이탈리아 2020년 9월 28일~10월 5일
문의: 010-4902-1022

유대인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장로칼럼

입양, 아동의 생명 살리는 선교



방찬중 장로
(제이홀사역)

고 하용조 목사님이 2004년 양재 온누리교회 입양공동체 행사에서 일성으로 던지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면서 입양에 대한 관심과 동참에 관한 문제를 조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입양은 한 아동의 생명을 살리는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아원에서 살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양부모가 가족구성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요약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성경의 요약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헤어나갈 방법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아무 대가없이 입양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그 엄청난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재examine해보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막 9:37).

몇 년 전 국내에서 개봉한 실존영화 라이언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인도의 빈민촌에서 한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훌륭한 청년으로 양육시킨 호주의 양모가 친모를 찾기 위해 나서는 아들에게 고백하는 대사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생물은 공히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타인의 육신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키우리라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지켜왔다.”

잔잔한 음성으로 양아들에게 입양배경을 밝히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양모는 친자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참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거쳐 상당수 새 생명들이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아이들은 시설과 기관에서 양육 받고 있는 현실이다.

제이홀공동체(입양공동체)에서는 이 땅의 고아들을 가슴에 품고 친자녀로 입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고귀한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형제자매들을 찾고 있다. 불임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 혹은 개인의 사유로 입양과 위탁사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이홀사역에 동참과 관심을 촉구한다.

또한 제이홀사역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를 넘어 한국의 모든 교회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 교회들이 고아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입양과 위탁이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기를 바란다. 입양, 위탁 된 아이들이 주변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 1:27).

권사칼럼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곳



신은숙 권사
(내적치유학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적치유학교를 섬긴지 10여 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다. 내적치유학교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원하지 않던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섬기고 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내적치유학교는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모든 스태프들이 지원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스태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학기를 준비한다. 스태프들은 내적치유학교를 섬기면서 매 학기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깨닫는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기도로 자원하고 있다.

지원자들 중에는 원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 아픔과 상처를 가득 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마음을 나눌 사람과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며 보호와 사랑을 요구하는 역기능적인 모습을 지닌 부부 등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내적치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며, 사랑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는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내적치유학교를 이토록 오랫동안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 아닐까? 내적치유학교에서 치유 받고, 서로를 용서하며, 회복된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역시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는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온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내적치유학교를 섬기고 있는 많은 스태프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다. 지원자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어머니와 아버지 되어주는 스태프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 힘들 법도 한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매 학기를 잘 마무리해내는 스태프들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한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행복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내적치유학교 60기까지 항상 사랑으로 함께해준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더 많은 학기들도 함께 하고 싶다.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내적치유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토록 귀한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제60기 내적치유학교
일정: 12월 6~8일
장소: 파주 솔 수양관
문의: 010-2596-1014

신앙에세이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상담학 박사)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정신 돌봄과 관련된 치유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적용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다양하게 예상되는 걱정거리도 있다. 1960년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 교수 필립 리프(Philip Rieff, 1966)는 기독교가 ‘자가 치료적 체계(self-help therapy)’로 변질되어 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구원은 심리적인 건강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보다 심리치료사로 소개되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 심리학을 하나의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권수영, 2007).

물론 현재 한국 교회는 복음의 여러 기능 중에서 성도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복된 소식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에 처해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치유와 회복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통적 신앙과 성경에 대한 훈련만큼 요청받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에서 정신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떤 관점과 자세로 정신건강과 감정을 돌봐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다.

첫째, 기독교상담 혹은 기독교 내적치유라는 말의 뜻은 종교적 경전, 예식, 종교 언어를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의 의미는 특성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용서의 정신을 가진 전문가의 자세를 일컫는 것이지 종교적 상담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둘째,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 성도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내면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매우 만나게 되면 목회자와 성

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치료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를 ‘오염된 관계’라고 말한다. 제대로 된 상담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목회자는 가볍게 목회적 대화를 통하여 조언을 주고, 더 깊은 이야기는 전문상담자에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심리나 상담 혹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 혹은 교회리더가 상담이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의학공부와 임상실습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진료를 보고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넷째, 내적치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프로그램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내면을 오픈하거나 깊은 비밀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나는 종종 치유프로그램에서 오래된 내면의 문제들을 털어놓고 후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본다. 어떤 교회는 무조건 상처와 죄악을 공적인 회중 앞에서 토로하게 만든다. 이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신

적, 종교적 학대에 해당한다. 상처는 안전한 공간에서 조심스럽고 준비된 만큼 다루어져야 치료적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대로 내담자로 하여금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개방시키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면의 상처를 개방하면 재트라우마를 입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다.

다섯째, 과도한 상담 비용 혹은 세미나 비용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독교적이지 않다. 한국 사람들은 비용이 비싸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일 일반 전문가들이 받는 비용보다 과도한 비용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적 행위를 한다면 나는 감히 그들이 거짓선지자들일 뿐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마음 치유와 돌봄은 건강한 신앙생활과 함께 가야 한다. 부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영적 돌봄의 원리로 자신의 삶을 돌보기를 바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인격의 분리로 인해 내가 아닌 다른 인격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인격이 분리되는 일이 죄와 상처로 인해 일어난다면, 역으로 죄가 아닌 은혜, 거룩, 사랑, 성령의 충격으로 인해 인격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신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심으로 육체적 임재는 사라졌지만 자신을 대신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영의 임재로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분이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 문제를 셰익스피어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희곡들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것처럼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끝까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사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

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요 1:1).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임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 숨 쉬고 있는 그분이 인격과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통로로써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만 알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체험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천 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던 예수님,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예수님,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수많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던 동일한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통로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른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사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17).

예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사시도록 만드는 통로는 나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격적인 동의와 살아있는 의지의 참

여가 필요합니다. 다중인격이 죄의 충격으로 인해 인격이 분열되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합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이 나의 인격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인간성과 개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 가운데 타락한 자아로 살아가는 내가 아닙니다. 타락한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내 의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예수님〉이라는 책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의 신발을 신고 걸으며 당신 집에서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 맡으신다면 당신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요, 당신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요,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딱 한 가지만 빼고 당신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건강, 상황, 문제, 관계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한 가지만 바뀌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 삶에 오시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휴가를 떠나고,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 따르는 것이다.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한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사람에게도 인격 장애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증상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상처로 우리 인격이 파편화되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이 체험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시작 찬양 – 내 이름 아시죠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절정에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시며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축복받은 존

재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간은 범죄하였고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이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다시 부활하사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

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전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눠보자.

마무리 찬양 – 아바 아버지

※오늘(11월 24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서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와 사랑(창세기 1장 1절)

14 온누리신문

2019년 11월 24일(주일) | 제1271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당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어린이창조과학탐사
일시: 11월 30일 오전 9시~오후 3시 (교회에서 버스로 이동)
장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원천교회 창조전시장
대상: 초등 2~6학년 30명 (회비 입금 순)
문의: 010-6284-8479 (오후 2시~6시 상담 가능)

온누리남성성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을
문의: 정상구 총무(010-4731-6514)
홈페이지 참조: onnmckr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금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팡: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분당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몽골 의료병원 의학서적 기증 요청
지역: 몽골 초이발산 광역의료병원 의학도서관
모집: 출간 10년 내 영문의학서적(원서)
기증: 12월 10일까지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김의석 팀장(010-3326-8058)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초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팡(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팡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꿈팡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1/3, 10, 17, 24: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종합관 3층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11/3 대학청년부예배는 연세대학교에서 성인3부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팡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킨텐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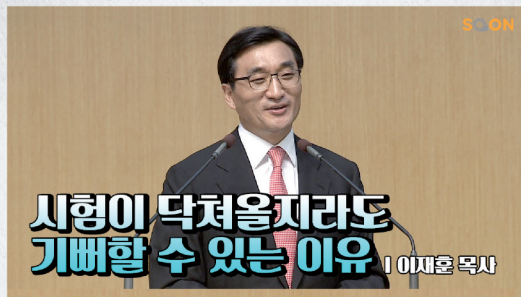
CGNTV

하루 3분, 은혜로운 습관
세상에서 가장 **순한 3분** 영상

SOON

매주 월, 수, 목, 토 오후 6시 새로운 영상 업로드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3분 메시지

설교, 간증 등 메시지를 3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하우스쿨

바쁜 현대인이 성경 지식과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강연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CGN 컬처클립 : 삶의 고백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삶의 위로를 전합니다.



CGN 컬처클립 : 찬양

CGNTV를 통해 방영된 음악 프로그램을 짧게 편집해 더 널리 은혜를 나눕니다.